

# 로맨틱 발레와 창작 발레, 한계를 초월하다

광주시립발레단 제125회 정기공연  
11~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서  
화려한 무대·다채로운 의상 등 담아  
첫 브랜드 창작발레 '달빛 아리랑'  
클래식 발레 '파키타'·김창욱 강의도



'파키타'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의 제125회 정기공연 '김창욱과 함께하는 발레 파키타X달빛 아리랑'이 오는 11~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정기공연은 로맨틱 발레와 창작 발레의 한계를 초월한다. 동시에 전통과 클래식 문화를 재해석해 즐거운 인문학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기획을 통한 창·제작과 시연을 시도했다.

1부 클래식 발레 '파키타', 2부 김창욱의 인문학 특강, 3부 창작 발레 '달빛 아리랑'이 함께 올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발레 작품에 스타 강사 김창욱의 인문학 소통 시간이 더해져 새로운 발레 공연이 이루어진다.

클래식 발레 '파키타'는 올레로 탄생 201주년을 맞이한 발레사의 대안무가 프티파의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작품이다. 스페인을 무대로 경쾌하면

서도 낭만적 발레 작품으로 프랑스 장교 루시엥과 집시소녀 파키타의 뜨거운 사랑을 그린다.

결혼식장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답게 아름다운 무용수들의 퍼포먼스와 의상, 무대장치들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프랑스발레의 우아함과 동시에 스페인 풍의 정열적인 군무가 함께 펼쳐져 춤의 진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달빛 아리랑'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입힌 발레를 통해 세계무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최태지 예술감독의 첫 브랜드 창작발레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이다. 서양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한국의 정서와 사상을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

세트, 다채로운 의상, 수준 높은 테크닉에 담았다. 작품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애환과 정이 녹아있는 아리랑의 선율 위로 달을 바라보는 무용수들의 몸짓을 담아 삶의 희망을 노래한다.

최정상 무용수들이 펼치는 몸의 언어, 드라마로 가득한 무대에선 잠시도 눈을 땔 수 없다. 국내 최정상 플레이어 김지영과 이재우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시립발레단과 불꽃 튀는 시너지지를 이룬다. 시립발레단의 대체불가 스타 무용수들인 보그단 플로피뉴, 박경애, 강은혜, 이기행, 강민지, 우건희 조희원 등 화려한 캐스팅이 선보이는 강렬한 연기 조우에 주목할 수 있다.

'아시아의 보석' 불소이 발레단 배우윤의 안무 지도로 펼쳐지는 로맨틱 발레 '파키타', 그리고 흥정민 안무를 바탕으로 예향의 전통 문화예술을 녹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달빛 아리랑'은 강태원의 작곡과 편곡을 거쳐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박태영 마에스트로의 지휘 아래 광주여성필하모닉은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선사한다. 여기에 새로운 무대장치들과 의상, 연출이 어우러져 극적이며 다양한 감정 라인을 담아 발레에 녹인 한국의 정서와 강렬한 감동이 함께한다.

'발레와 인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번 강연은 발레는 우리들 삶의 이야기가 춤이 된 것이며 마음의 행복을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11일 오후 7시 30분, 12일 오후 3시·7시 30분이며 티켓은 1~3만 원. 문의 1588-7890. /이보람 기자



'달빛 아리랑'

## 문화 브리핑



- ◇양민모 바이올린 리사이틀=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사진)
- ◇서양화·판화 황도회 전시회=8일까지 양림미술관
- ◇미디어338 기획전 '빠키 작가초대전'=8일~11월 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338
- ◇전문문화교류 인도 초청 공연=9일 오후 4시 30분 전문문화관 너털마당, 10일 오후 5시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 ◇제15회 광주국제영화연극제 주제공연 '그와 나'=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 ◇사랑의 등불-예술 나눔 36년(원로예술가 6인의 삶과 예술 40년)=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 ◇빛고을국악전수관 개관17주년 축하 공연=10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 ◇현대미술의 큐레이팅=10~15일 바림
- ◇강원자 개인전=10~16일 갤러리S
- ◇시립교향악단 GSO스페셜-팝·가요무대=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소프라노 한아름 독창회=1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양상봉 사랑과 나눔 제38회 정기연주회 '가족을 위한 멜로디'=12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2019만세만세만세만세 송재영 '타자기 버스킹'=12일 오후 3시 양림커뮤니티센터
- ◇제6회 풍류달빛공연=12일 오후 7시 무등산생태탐방원
- ◇김순옥 아코디언 독주회=12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 ◇흙의 마음전=13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시실
- ◇'숨-다시 꽃이 되다' 장용림 개인전=13일까지 예술공간 집
- ◇공예모임 수다 SU:DA 전=13일까지 갤러리혜움
- ◇'누정, 연산강과 정자' 전=3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 비상무용단,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

'펜로즈의 시계'...3관왕 영예

광주 비상무용단(안무 박종임 송원대 실용예술학과 교수)이 지난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8회 전국무용제 폐막식에서 경연부문 최고단체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비상무용단은 작품 '펜로즈의 시계'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최우수연기상, 무대예술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작품 '펜로즈의 시계'는 12개 숫자로 이뤄진 영역이자 톱니바퀴처럼 틈을 내주지 않는 시계를 통해 꿈과 현실, 육광과 이상에서 고민하는 현대인의 일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경연부문 개인상에도 '펜로즈의 시계' 주역을 맡은 장혜원(25·송원대 대학원)이 최우수연기상

을, 세트를 연출한 이종영(43·ART VILAGE·43)이 무대예술상을 수상했다.

비상무용단의 작품은 과중시계 태엽과 진자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무대 세트, 시침과 분침처럼 시간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조명, 대형 시계추에 매달려 공중을 오가는 무용수의 날갯짓은 무한시간 위에서 끝없이 계단을 오르는 우리의 고된 삶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무용협회와 대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국무용제는 '일상이 예술이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16개 시·도 대표들이 참가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에서 펼쳐졌다. /이연수 기자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 비상무용단의 '펜로즈의 시계' 공연 장면.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 제공

## 투자 가치 좋은 경매 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개(061-270-6691) / 매각기일 2019.10.14(月)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토지면적	1,712,816,000원
건물면적	최저가 (70%) 1,198,971,000원
매각물건	보충금 (10%) 119,900,000원
개시결정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2018-11-19 채무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목적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독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감정가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